‘경선 치열’ 국민의당…‘후보 기근’ 더민주

호남 민심이반·安신당 기대감에 탈당파 연쇄이동

최경환·김명진 합류 선언…예비후보들도 선택 기로

현역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탈당에 이어 총선 예비후보들의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줄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총선 출마 예정자들도 더민주를 탈당해 안철수 의원의 신당인 국민의당으로의 합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자칫 4·13 총선에서 각 선거구별로 더민주는 예비후보 ‘기근 현상’에 시달리는 반면 국민의당은 본선 못지않은 치열한 경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일 선관위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역 민심이 더 민주에 등을 돌리고 안철수 신당인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후보들이 더민주를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연쇄이동하고 있다.

최경환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와 김명진 남구 예비후보가 이날 잇따라 더민주 탈당과 국민의당 합류를 선언했다. 최 예비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김 예비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최 예비후보는 “한 달여간 많은 주민을 만났지만 현장에서는 더민주의 어깨띠와 명함을 갖고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역 민심을 평가했다.

김 예비후보는 “하루 1000명 유권자와 눈빛을 나누고 악수를 하면서 생각했지만 시민은 ‘뭘 기대하고 남아 있느냐’는 힐난을 보내는 상황”이라며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이날 현재 광주 8개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 12명 가운데 더민주 소속은 이형석(북구을), 임한필(광산갑), 김중구(광산을) 예비후보 3명만이 남게됐다.

더민주로 예비후보를 등록한 뒤 탈당한 예비후보는 정진욱(남구), 김명진(남구), 최경환(북구을) 3명이며, 나머지는 무소속 3명, 정의당 2명이다. 진선기(북구갑), 노남수(북구을) 무소속 예비후보도 신당 세력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또는 18일께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인 김유정(북구갑) 전 더민주 대변인, 정용화(서구갑) 호남미래연대 이사장 등도 국민의당에 참여한 가운데 다른 출마 예정자의 합류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선거구의 출마예정자들은 이달말까지 민심을 더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일부 지역구에서는 탈당한 현역 의원을 포함한 복수의 입지자가 일찌감치 경쟁구도를 형성하면서 국민의당 경선 대진도 차츰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남구에서는 장병완 의원을 비롯해 최근 출판기념회를 연 안철수 전 보좌관인 서정성 남구의사회장과 김명진·정진욱 예비후보 등 3명, 북구을에서는 임내현 의원과 최경환 예비후보가 국민의당에 합류한데 이어 이남재 동아시아미래재단 전략기획본부장도 탈당 후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서구갑에서도 탈당이 임박한 박혜자 의원,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이 국민의당 소속으로 총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형석(북구을) 예비후보는 더민주를 끝까지 사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예비후보는 14일 예비후보들의 탈당 현상에 대해 “최근 불고 있는 안철수 바람을 타고 많은 출마예정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선거구 지지기반 약하거나 인지도가 낮아 바람 선거에 기대려고 하는 것”이라며 “민심을 운운하며 떠나는 것은 정치인의 정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광주에서 국민의당이 대세로 굳어지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사들도 탈당을 고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국민의당 경선이 본선 못지않게 뜨거워 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명동성당 찾은 ‘安’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안철수 의원과 한상진 공동창당 준비위원 등 가칭 국민의당 지도부들이 14일 오후 명동성당을 방문해 염수정 추기경과 새해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文 “식물국회 아닌 식물여당이 문제”

“노동법 일괄처리·선거구 획정 대안 없이 일방 통보만”

박대통령 대국민 담화 반박…“야당탓 국회탓 늘 남탓”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쟁점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식물국회가 아니라 식물여당”, “새누리당 배후에 있는 대통령이 문제”라며 역공을 취했다.

문 대표는 애초 이날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의 회견을 반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런 형태의 회견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성명으로 대신했다.

문 대표는 쟁점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고 지적한 뒤 구체적인 법안을 거론하며 협상 상황을 소개했다.

정부여당이 제출한 5개 노동법안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경우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처리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 당은 나머지 3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누누이 제안했지만 정부여당은 일괄처리만을 고집하며 무작정 밀어붙였다”며 “정부여당의 편협한 고집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 “우리 당은 애초 61개 재벌집단 모두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10대 재벌·대기업까지로 백보 양보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전체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만을 고집하며 타협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선거구 획정 협상 결렬의 책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다”며 “십여 차례 협상을 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단 한 번도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정책이 세계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대목에 이르러 선 대통령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야당 탓하고 국회 탓만 하는 탓통령, 억지주장과 무리한 요구만 하는 떼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13 총선 현장

주승용 무소속 의원 ‘자랑스런 성균인상’

무소속 주승용(여수 을) 의원은 14일 성균관대 총동창회가 선정하는 ‘2015 자랑스러운 성균인상’ 공직자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직자 부문’에서는 주 의원과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기업인 부문’에서는 박상조 고원물산 대표이사와 김상헌 동서 고문,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해외 동문 부문’에는 김래응 북미주연합동문회 명예회장이 각각 선정됐다.

주 의원은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정치와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서 치매예방 감사패

장병완 무소속 의원

무소속 장병완(광주시 남구) 의원은 14일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서 열린 ‘치매 조기진단사업성과 보고회’에서 치매예방 노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과학기술원과 조선대 치매국책연구 광주센터로부터 감사패를 각각 전달 받았다.

장 의원은 지난 2013년 정부지정 치매예측국책연구단 발족에 이어, 노인건강타운 내 광주시 치매예방관리센터 설립 및 치매국책연구단 광주센터 유치(2014년) 등 치매예방 노력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실업률 최악…일자리 정부가 나서야”

이형석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

이형석 광주시 북구 을 예비후보는 14일 고착화된 청년실업과 미래 인적자본 손상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1999년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청년 실업률이 9.2%로 최악”이라면서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청년을 장기 고용하는 기업에겐 보조금 또는 세제혜택을 주고 청년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학교와 연계도 긴밀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린선거 위한 공동합의문 채택을”

오형근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

오형근 광주시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14일 클린선거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재선거는 예산낭비와 행정공백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되는데, 이로 인해 동구의 발전이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면서 “이번 재선거 출마후보를 대상으로 클린선거를 검증하고 합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밝혔다.

그는 특히 “모든 후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차량 또는 음식물제공 등 사전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부정·불법이 없었는지 서로 명확히 확인한 뒤 향후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클린정책선거를 치르자는 내용의 공동합의문을 채택하자”고 말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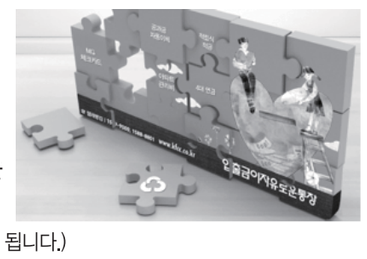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MG여성만세예금” 이란?

알뜰한 당신에게
“MG여성만세예금”을
추천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여성들에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단,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 되어야 면제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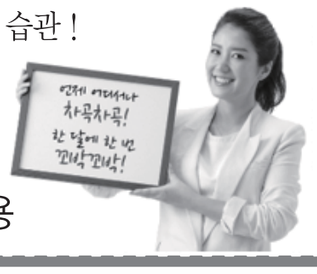


“MG new 정기적금”

예금을 크게 키우는 똑똑한 금융 습관!

가입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 1년 최대 2.6% 이율 적용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정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